

현's tory

두 번째 이야기

김명수 가야금 독주회

일시 _ 2011년 10월 16일(日) 오후 4시 30분

장소 _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주의사항

국악을 사랑하는 문화인은 다음 사항을 지킵니다.

- 음식물을 공연장 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석을 이용하시고 공연장 내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내에서의 비디오 및 사진 촬영과 화환 증정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 입장이 불가하며,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후원 예촌국악원·부산동보학회 협찬 우리웃

BSF 부산문화재단 이 연주회는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大正十一年
 九月廿三日
 于首尔
 李正熙

감장으로 쓸아 지는 달빛 속으로
 열 두 줄 현 토리 틈을 헤집어 가고
 너나없이 모티드는 소나무 그늘 아래
 동녘 너의 새벽이 밝아오더라

지난 가을 첫 독주회를 디딤돌 삼아 올해 또한
 제2회 가야금 독주회를 준비한 사랑하는 제자
 김명수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매일매일 도전이지만
 자기의 목적과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다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허탈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 한 순간 접어버리고 연습에 또 연습으
 로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평범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빼어난 가야금 연주자로서 살아숨쉬기만 하듯 생동감있는 선율로 연주한다면 그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영광을 맞이
 할 것입니다.
 부디 제자 김명수에게도 그러한 높은 꿈을 가지고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쉽없는
 정진과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강태홍류

축하의 말



지난 가을 첫 독주회를 디딤돌 삼아 올해 또한
 제2회 가야금 독주회를 준비한 사랑하는 제자
 김명수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매일매일 도전이지만
 자기의 목적과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다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허탈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 한 순간 접어버리고 연습에 또 연습으
 로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평범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빼어난 가야금 연주자로서 살아숨쉬기만 하듯 생동감있는 선율로 연주한다면 그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영광을 맞이
 할 것입니다.

부디 제자 김명수에게도 그러한 높은 꿈을 가지고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쉽없는
 정진과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신 명 숙 씀

연주곡

사회 : 조 태 원 / 국립부산국악원

1.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이중주

가야금 _ 김명수, 아쟁 _ 신재현, 장구 _ 구환석

2. 철현금 산조 이중주

철현금 _ 김명수, 아쟁 _ 신재현, 장구 _ 윤승환

3. 대풍류

가야금 _ 김명수, 거문고 _ 오상훈, 해금 _ 김선구, 아쟁 _ 윤서경, 장구 _ 윤승환

4. 푸살

가야금 _ 김명수, 피리 _ 이호진, 대금 _ 이영섭, 해금 _ 김선구

아쟁 _ 윤서경, 징 _ 신재현, 장구 _ 윤승환



김홍도 <월하청송도 月下靑松圖>

공연플이 : 조 태 원 / 국립부산국악원

I

좋은 공연을 보는 사람의 행복은 크다. 좋은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크다. 그러나 좋은 공연의 끝에는 모두가 가슴에 나름의 감동을 품고 간다. 괴로움은 매번 새롭고 아프지만 음악에 대한 감동을 스스로 품기 위해 또 일년을 준비했나 보다. 그렇게 「현's tory」 “김명수가 풀어내는 현악기의 민속악” 두 번째 이야기는 시작된다.

II

김명수의 「현's tory」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오른다. 첫 번째는 “푸살→〈한갑득류 거문고산조 합주〉→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이고, 두 번째는 역순으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철현금 산조→대풍류〉→푸살”이다. 숙제를 풀고 가고 싶은가 보다. 한번 더 도전하고 싶었나 보다. 아니면 지나온 길(과정)을 정리해서 가야할 길의 끝(목표)을 잠시라도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III

감상 포인트 하나.

민속악은 사람 사는 이야기, 슬픔과 기쁨, 편안과 격동이 공존하는 가락이다. 가락 속의 감정은 아주 익숙하다.

감정의 표현 보다, 그 감정의 절제를 추구하는 가락에는 더없는 민속악의 미학이 있다.

감상 포인트 둘.

4작품은 모두 느린 장단에서 힘찬 빠른 장단으로 흐름이 변화는 곡이며 공연 진행에 따라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의 음색이 더해져 음량도 강화된다. 각 곡 안의 변화(속도)와 공연 전체의 변화(음색 및 음량)도 감상의 재미이다.

1)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이중주

산조(散調)는 ‘散(흠을:산)+調(가락:조)’로 풀이하여 “허튼 가락”이라고도 하며 ‘散(흠을/푼다/이완)+調(고을/죄다/긴장)’로 풀이하여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음악 구성이라고도 한다. 이를 합하면 가락을 죄여 긴장을 만들고 풀어 이완을 전달하니 음악은 일정한 구조가 없는 감정의 변화에 따른 흠어진 가락이 된다. 흠어진 가락을 받쳐주는 산조의 틀은 장단이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중간 속도의 중모리·중중모리로 다시 빠른 자진모리·휘몰이·세산조시로 이어지는 장단을 지켜가며 감정을 담아낸다. 허튼 가락과 장단의 틀에 강태홍 선생의 삶이 담겨져 있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오늘은 가야금의 담담한 음색에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아쟁이 함께 연주한다. 그 느낌이 어떨지 새삼 궁금하다.

두 번째 독주회의 첫 곡에서 연주자가 풀고 싶은 것, 그것을 찾아 첫 독주회로 돌아가 보자. “지금도 강태홍류를 다 알지 못한다. 절제와 아낌 속에서 꼭 채워야 하는 것이 힘들다. 강태홍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연주자 김명수의 끝없는 숙제이다. (2010.10.17(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에서)”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숙제를 풀고 싶은 것이다.

2) 철현금 산조 이중주

최근에 거문고와 기타를 접목하여 만들어진 철현금은 금속줄의 지속성과 술대를 이용한 소리내기, 큰 울림통의 공명, 자유로운 높이 조절 기법 등으로 인해 가야금 보다 강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음색도 현대인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예민한 금속줄의 속성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한 숙련이 필요한 악기이다. 철현금 산조의 장단 구성은 가야금 산조의 특징인 매우 빠른 휘모리와 세산조시(단모리)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동일하다.

철현금의 음색이 주는 매력과 연주자의 기교를 중심으로 가야금 산조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면 또 다른 산조 음악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대풍류

대풍류는 피리와 대금이 중심이 되는 관악합주의 연주형태이자, 경기지방 민속악으로 구성된 특정 악곡을 지칭하는 말이다. 1960년대 지영희 명인이 구성한 경기 대풍류는 민간의 잔치나 행진곡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춤 반주에도 사용된다. 대풍류는 “염불(긴염불-자진염불), 타령(삼현타령-느린허튼타령-중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 굿거리(굿거리-자진굿거리), 당악”으로 구성되며 장단은 6박(도드리장단) 및 3소박 4박(타령, 굿거리장단)의 두 종류를 사용한다. 대풍류의 멋은 같은 박자의 장단을 느림과 빠름, 단순과 복잡으로 변화시켜 연주하는 형식미와 가슴 벅찬 선율의 유장함과 자유로움에 있다.

그런데 오늘 연주 구성에는 주선율을 담당하는 피리와 대금이 없다. 탄현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 칠현악기인 해금과 아쟁만으로 연주되는 대풍류, 대나무 관악기가 없는 현악기만의 대풍류로 “줄풍류(형태)로 연주하는 대풍류(악곡)”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관악기의 주선율이 없는 현악기 연주자 4명의 대풍류 연주는 이채롭고 의미심장(意味深長)한 현악기의 반란 같다.

4) 푸살

두 번째 독주회의 마지막 곡에 연주자가 담고 싶은 것, 그것을 찾아 다시 첫 독주회로 돌아가 본다. “연주자가 푸살에서 느낀 ‘뭔가 모를 흥분’은 삶 속에서 ‘이별의 슬픔과 극복의 노력, 그리고 담담함을 통한 성숙으로 연결’ 되었다고 한다. (2010.10.17(일) 푸살 에서)”라고 했다. 가야금과 아쟁의 이중주로 연주하던 푸살에 피리, 대금, 해금, 징이 추가되어 풍성해지고 화려해졌다. 첫 연주가 “이별의 극복”이라는 테마였다면 두 번째 연주는 “만남과 어울림의 푸살”이다.

민속악에서도 보기 드문 푸살의 15→10→5박 혼합박자는 신선하면서도 3박과 2박이 심오한 조합을 이루어 음악을 이끌어간다. 원래 새로 지은 집의 안전과 평화를 비는 성주굿이나 가족의 벼슬길과 경사의 축원을 담았던 푸살 선율은 민속악의 한(恨)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다른 민속악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와 흥의 멋이 있다. 번잡한 도시의 화려한 삶의 무게를 벗고 우리 악기가 전하는 신명나는 푸살 속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자.

연주자의 말

현's tory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tory(토리)는 민요에서 지역적 특색이나 특징 등을 구분하는 말로, 경토리, 메나리토리 등으로 쓰이는 국악용어입니다. 현's tory는 이러한 '토리'에 연주자 김명수만의 보다 큰 꿈과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정악_토리', '민속악_토리', '창작음악_토리'... 이렇게 '현(絃)'을 통해 모든 음악의 장르를 넘나들고 싶은 꿈과 '현악기_토리', '관악기_토리'처럼 악기마다의 특색을 잘 살려 내면서도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픈 꿈을 말합니다.

또한 현's tory는 '현'의 'story', 곧 '현의 이야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현으로 표현하는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요. 단순하게는 현악기 특유의 멋스러움부터, 현으로 연주하는 음악과 현과 어우러지는 악기들의 이야기가 연주자와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단 한 줄이라도, 감동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현's tory는...

저의 분신과도 같은 가야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현(絃)' 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으로 표현하는 모든 음악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와 당신, 우리의 이야기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다양한 마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s tory에는 현과 음악으로 그 모두를 담아내고픈 저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가지 않은 길...

아직 더 멀리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할 저의 음악을 순간이 아닌 영원으로 바꾸는 마술을 계속하려 합니다. 가야금 그리고 음악에 마음과 이야기를 담고 싶은 이 느낌 그대로 영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길목에서 이제, 가야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아 현's tory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주자

가야금 김명수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 수료
효원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효산가야금연주단 단원 역임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
사사: 신명숙, 백혜숙, 김계옥, 윤은주, 이경애, 김혜진, 김혜련, 고연정, 유경화

2010년 김명수 가야금 독주회 「현's tory」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발표회
토요상설, 화요공감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공연'
부산 동보악회 '다섯 번째 사랑방 이야기'
'유경화철현금 앙상블을 만나다'
'유경화철현금 협주곡을 만나다' 외 다수 공연



조 태 원 | 공연플러이, 사회 - 국립부산국악원
구 환 석 | 장구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
김 선 구 | 해금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이 호 진 | 피리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오 상 훈 | 거문고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 동보악회, 산·바다·해 멤버
신 재 현 | 아쟁, 징 - 제3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종횡대상 대통령상 수상
윤 서 경 | 아쟁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그룹 콜럼버스 대표
이 영 섭 | 대금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소금수석 역임, 월드뮤직그룹 "Vinalog" 멤버
윤 승 환 | 장구 - 김해시립가야금단 단원, 퓨전국악 '아비오' 대표